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주체40(1951)년 1월 어느 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인민군지휘관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부 지휘성원들속에서 나타난 사대주의, 교조주의적경향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 군사지휘관들은 우리의 군사전법과 선진군사과학에 정통하여 그것을 작전전투조직과 지휘에 능숙히 활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동한 실례를 들어 주체를 세우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였다.

서양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먹는다고 하여 우리도 음식을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먹을수는 없다. 조선사람은 예로부터 밥과 국을 먹기때문에 나이프와 포크를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생활풍습대로 음식을 숟가락과 저가락으로 먹는것이 제일 좋다. 다른 나라의 전법도 이와 같은 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 …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전법은 군대의 무장장비수준과 전투행동지대의 특성에 많이 의존된다고, 우리는 넓은 평야지대가 많은 다른 나라의 전법이 아니라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는 전법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포를 리용하는 경우에도 평사포보다 박격포와 곡사포를 많이 리용하여야 한다고, 기복이 심하고 산이 많은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서는 박격포와 같이 가볍고 기동이 편리하며 위력이 있는 포들을 잘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승리의 신심에 넘쳐있는 지휘관들을 믿음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군사지휘관들은 작전과 전투에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을 활용함으로써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전쟁승리를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이날에 진행된 작전회의와 지휘관, 정치일군회의는 사대와 교조를 불사르고 우리 식의 싸움방법으로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한 또 하나의 전환적인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림 광 훈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진리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3)

석 윤 기 선 생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렀던 1960년대중엽, 당시의 현실은 문학이 인민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데 이바지할것을 절박한 과제로 내세우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지방현지지도의 길에서 작가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시면서 장시간에 걸쳐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는데 수령님을 보좌하시며 동행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문학이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통찰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작가들을 만나주신지 얼마후인 주체55(1966)년 2월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시 작가동맹위원장을 만나시여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즉시에 석윤기선생을 비롯한 작가들에게 전달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을 형상한 새로운 혁명문학을 지난 시기처럼 단편적인 면을 내용으로 한 짤막한 시나 단편소설 같은것을 몇편 쓰는 식으로 창작할것이 아니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수령님의 혁명력사전모를 볼수 있게 위대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수령,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혁명적대작을 많이 써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형상을 문학작품에 담는것은 현시대의 성숙된 요구이고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일 뿐 아니라 새로운 혁명문학이 수행하여야 할 사명과 임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전달받은 석윤기선생은 작가로서 인생의 새로운 걸음을 떼게 된다는 환희로 하여 북받치는 흥분을 어쩔수 없었고 그처럼 책임적이고 영예로운 창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고싶은 열망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하기에 그는 창작실로 돌아온 즉시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창작에 달라붙었다.

이 시기 작가동맹에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령형상소설 작품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집단(오늘의 4.15문학창작단의 전신)이 무어졌다.

이때 석윤기선생은 그렇게도 바라마지 않던 이 창작집단에 망라되여 창작활동을 벌리게 되였는데 참으로 이것은 작가인 그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행복이였다.

그는 밤잠을 잊고 펜을 달려 짧은 기간내에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을 탈고하여 심의에 제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소설의 사상적내용과 이야기줄거리, 기본인간관계와 성격, 력사적사실 등 소설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석윤기선생은 가장 위대한분의 보살피심속에 자기가 창작생활을 하고있다는 행복감에 젖어 밤에 낮을 이어 완성작업을 다그치였다.

그리하여 1970년 여름 이 작품을 내놓을수 있게 되였다.

1971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몇명의 일군들과 함께 작가 석윤기선생을 곁으로 불러주시였다. 그것은 작가에 대한 그이의 특별한 믿음과 사랑의 표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밤이 깊도록 열정에 넘치신 음성으로 문학예술건설에 대한 문제, 혁명발전의 전망문제 등 참으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석윤기선생의 치료에 알맞는 좋은 약들을 알아보시고 손수 구하여 보내시면서 튼튼한 몸으로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라고, 앞으로도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제기하라는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작가의 가슴속에서는 그이에 대한 흠모의 정이 대하처럼 굽이쳐흘렀고 감격과 격정이 쇠물처럼 끓어넘쳤다.

그리하여 그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소설로 옮긴데 이어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1976년), 《대지는 푸르다》(1981년), 《봄우뢰》(1985년) 등을 련속 명작으로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반영한 작품창작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웠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4.15문학창작단 단장,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령형상창조에 온몸과 넋을 다 태웠다.

석윤기선생은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고 김일성상계관인으로, 로력영웅으로 되였다.

돌이켜보면 그가 어린시절에 품었던 소박한 그 모든 소원은 남조선땅에서 이루어질수 없었다. 그는 공화국의 품에 안기여 비로소 인생의 참된 봄을 맞이할수 있었으며 창작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값지고 영광에 찬 삶을 누릴수 있었다.

본사기자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외세에게 군사주권을 통채로 내맡긴 매국역적

조선전쟁은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더욱 철저히 예속시키고 종속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미국은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리승만역적패당과 각서교환의 형식으로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이라는 것을 조작하였다.

이어 리승만역도에게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이양할것을 강요하였다.

미국에 추종하여 리승만역도는 맥아더에게 남조선군의 작전권을 넘기는 편지를 보내였으며 이 편지를 받은 맥아더는 남조선군의 통수권을 《이양받겠다.》는 회답편지를 주구에게 보냈다.

상전과 주구사이의 서한교환형식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은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남조선군은 이른바 《국군》이란 명색밑에 가지고있었던 형식상의 《독자성》마저도 잃고 미군의 지휘와 명령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철저한 피뢰군으로 전락되게 되였다.

《대전협정》으로 남조선군의 통수권을 거머쥔 미국은 1954년 11월 《호상방위조약》의 후속협정인 《합의의사록》을 통해 《유엔군사령부》의 외피를 쓴 미군이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틀어쥐도록 하였다.

그후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을 강점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자 미국은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고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 1978년 11월 7일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조작하였다.

미군 륙군대장을 사령관으로, 남조선군 륙군대장을 부사령관으로 둔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가 가지고있던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그대로 넘겨받았다.

미국은 남조선 각계층에서 군사주권을 반환하고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자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눅잦히기 위해 1994년 12월초 남조선군의 《자주적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군과 대등한 《동반자》의 자격을 줄것처럼 남조선민심과 여론을 기만하면서 작전지휘체계를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여 형식상 《평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군에 넘겨주는 놀음을 벌렸다.

그러나 《련합위기관리》, 《전시작전계획수립》, 《합동훈련 및 연습계획작성과 실시》 등의 핵심권한을 저들이 장악하고 평시에도 남조선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고있다.

이에 대해 어느한 남조선언론은 《미국은 1994년 12월 당시 〈정부〉에 평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였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미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더라도 평시 위기관리권한을 비롯해 작전계획수립, 합동훈련계획 및 실시, 정보관리 등으로 이루어진 6개항의 〈련합권한위임사항〉을 주한미군사령관의 권한으로 남겨둠으로써 이전과 다름없이 남조선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수 있게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반미자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요구가 더욱더 거세여지자 2007년 2월 형식상으로나마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극악한 친미주구 리명박역도는 《시기상조》니, 《잘못된 선택》이니 하면서 미국상전에게 애걸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15년까지 연기시키는 추태를 부리였으며 이후 박근혜역도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무기한 연기로 남조선군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지배는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전 조선을 침탈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이 일층 강화되게 되였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는것은 시기상조라고 떠들고있다.

친미사대매국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천하역적무리들이 그대로 있는한 남조선은 언제 가도 미국의 식민지지배에서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김 영 진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제야수들의 치떨리는 만행

로근리는 고발한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인민군대의 반공격으로 참패를 거듭한 미군이 남으로 쫓겨가면서 감행한 대대적인 살륙만행들가운데는 로근리학살만행도 있다.

당시 미제침략군은 인민군대의 반격에 몰리여 전 전선에서 퇴각을 하고있었다.

미제침략군의 한 부대가 1950년 7월 25일 영동군 주곡리(당시)일대에 이르렀을 때였다.

미제침략군은 이곳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줄테니 모두 모이라.》고 하고는 철길을 따라 로근리로 끌고가 7월 26일 정오무렵 그들을 모두 철길우에 집결시켰다.

그때 미군통신병이 어디론가 무전련락을 하자 얼마후 정찰기 한대가 나타나 인민들의 머리우를 몇바퀴 돌고가더니 이어 미군전투기 2대가 날아와 무작정 주민들의 머리우에 폭탄을 쏟아붓고 기총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철길우와 주변에는 100여명의 시체가 생겨났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갈팡질팡 헤덤벼치다가 2개의 기차굴속으로 뛰여들어갔다.

그러자 미제침략군은 굴속에 대피한 사람들을 향하여 앞뒤쪽 야산에서 기관총을 쏘아대다가 그것도 성차지 않아 기차굴입구에까지 접근하여 미친듯이 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는 《부상자를 치료해준다.》는 구실로 굴안에 들어와 생존자들을 확인한 다음 또다시 기관총사격을 가하는 악귀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 끔찍한 살륙만행은 7월 29일 오전까지 며칠동안이나 계속되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출판물은 《귀신도 기가 막혀 통곡할 참극》이라고 하면서 미군의 로근리학살만행을 단죄하였다.

그때 그 학살만행에 직접 가담하였던 미제침략군의 한 사병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련락병이 달려와 〈몽땅 쏴죽이라. 한사람도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소총수였던 패터슨은 《이것은 그야말로 대학살이였다.》고 시인하였다.

모든 사실은 로근리에서 저지른 미제침략군의 대량살륙행위는 사전에 면밀히 준비되여 감행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범죄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군의 학살만행은 단지 로근리에서만 감행된것이 아니다.

미군의 군화발이 닿은 남조선의 곳곳마다에서 야수적으로 감행되였다.

미제는 1950년 7월부터 9월말까지의 기간에 중무장한 남조선군경들을 동원하여 대전형무소에서 1 800여명을, 부산형무소에서 4 800여명을 총살하였으며 대구형무소에서도 1 400여명을 집단학살하고 시체들을 수직갱에 처넣거나 매장해버리였다.

조선전쟁시기 감행된 치떨리는 민간인학살만행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야만의 무리이며 범죄의 집단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남

미제공중비적들에 의해 혹심하게 파괴된 평양시(왼쪽)와 원산시(오른쪽)의 일부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